

# 코드 아라카르트 I

## 1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부족도 있다고 들었다. 활용할 수 있는 감각, 오감과 육감을 포괄하는 소통체계, 기록체계를 창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어떤, 지구의 공통어가 된다면 컴퓨터 언어도 계속 새로운 것이 개발되는 것을 보니까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 영화 <컨택트(The Arrival)>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가 될지도

오픈, 공유, 동의라는 단어가 요즘의 화두인데 실제로 오픈된 것을 공유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의 공용어인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그 인식에 대해 질문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배적인 언어로(세계의 공용어로 여겨지는) 혹은 지배된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드가 서구 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언어에도 생과 사가 있듯이,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데 코드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각기 다른 규칙으로 키푸를 만들었다면(만약 화자들끼리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면) 컴파일링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언어는 사라지고 잊혀지는데) 한 언어가 발전하고 확장되기 위한 환경, 구조, 과정 등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바벨탑을 떠올려봤을 때) 성공적으로 공용어를 만들어도 유지할 수 있을까? 반대로 다른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언어는 권력 즉 힘을 가지고 있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의 언어인 ‘키푸’조차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 권력에는 공포가 담겨 있는데 ‘키푸’도 공포의 요소로 사용이 되었을까?

아직 해독되지 않은 키푸의 내용이 숫자가 아닌 문자일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문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매듭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을까? 원시인들의 유물을 보면 매듭을 이용한 것들이 있다. 어쩌면 매듭 방식이 익숙한 방식이어서 언어로써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문혀진 문명의 언어를 돌아보는 일, 나아가 재해석하는 일은 일종의 다원주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코드를 생성하고 풀어내는 문해력을 갖추는 행위의 특권성(?)과 참여해지는 감수성 사이를 어떻게 횡단할 수 있을까? / 횡단해야 할까?

언어(형식)가 본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보았을 때 코드라는 언어가 만들어 내는 문화적 가능성은 무엇일까

## 2

코드와 기계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인 우리는 왜 이를 어려워하는가?

코드(컴퓨터 언어)의 인간적인 면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 한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코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이, 오래 소화해야 하는가?

코드가 ‘읽힌다(암기가 아닌)’는 단어가 너무 열려있어서 좋았다.

출력은 온몸으로 해야 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주관적이다.

## 3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떤 코드를 입력할 것인가?

해커문화 - 새로운 영웅(!)신화 - 에 대한 환상을 깨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 - 다른 신화- 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신화는 어느 지점에서 갱신되어야 파시즘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역시 계속해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모으고 뽀족해지는 방향성을 뭉뚱그리며 굴러가야 하는 걸까? 그건 신화가 될 수 있나?

이 시대, 이 상황에 대한 예술의 역할,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은? 기회가 된다면 예술 작품에 대해 더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지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업데이트, 속도 중심적인(생존/성공을 위해 이러한 가치에 따르기를 요청하는) 기술 사회/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한 건설적인/유의미한 리뷰와 비평을 공유하고 축적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기술 문화 내적 요소들이 필요할까?

수입 위주의(역설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국내 ‘해커 문화’ 혹은 소수자에게 패러노이아를 주는 폭력적 해커문화에 대한 어떤 대안적 상상/실천이 있을 수 있을까?

알고리즘 같은 오늘날의 기술은 현대 사회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현미경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시대와 문화, 학습부터 편견, 차별 같은 관행들이 은연중에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의 기술문화에 대해 각자 달고 싶은 주석(//)이 있다면 무엇일까?

## 4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다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짜 목적을 잃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을 잡아야 하며 어떻게 유지해나갈 수 있을까?

인공지능 모델을 인지 기능의(부분적) 외주화라고 한다면 그 외주화된 인지 기능을 가동하고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은 아마 대체로 빅테크 기업일 것이다. 사기업에 대규모의 인지 작업이 이전(?)되는 데 따른 사회 경제적, 정치적 함의는 어떻게 될까?

생성 모델에 관한 우려 중, 어중간한 퀄리티의 콘텐츠가 자동화로 시장을 점유하여 전체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

GPT-3를 만든 회사의 모토(?)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경로로 자본을 창출하려고 할까?

우리는 신이 만든 AI가 아닐까? AI가 만든 글이 ‘오답’이었듯, 우리는 (영감을 주는) ‘오답 노트’를 적고 있지 않을까. 동시에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듯 우리가 신을 뛰어넘는 부분은 어떤 지점일까?

어쩌면 우리가 읽어왔던 방식이 오히려 더 기계적(수동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미술계의 언어, 미술관의 언어, 비평의 언어 안에서 AI보다 더 기계적인 Reading을 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AI가 아웃풋을 내는 과정과 AI에 들어가는 인풋, AI의 생산에 잡힌 방향성을 보면서 인간-세계의 교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작품에 대한 독해를 필수로 수반하는 요즘(?)의 경향에서 ‘제목’ 또는 몇 가지 ‘이미지’가 독해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글이 무조건적 오답인가? 사실 인간이 쓴 글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기계적 읽기’가 도움이 될 때(필요할 때), 그리고 반대로 방해가 되는 순간들은 언제일까? 우리들 모르게 쓰는 순간은 언제이며, 기피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 5

오픈 소스의 기저에는 기여와 커뮤니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비단 코드 레벨이 아닌 아카이브의 과정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에 가장 강점을 가지는 게 미술관이라 생각하는데, 기관의 오픈 아카이브가 일방적인 수장고 공개의 개념이 아닌 기여의 ‘개념’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오픈 소스 정신의 원리(?)는 예술에 닿아있다는 게 친밀감이 느껴진다. 모두가 서로에게 자유롭게 배우는 커뮤니티가 어디에나 생기기를!

신념이었던 것이 이득이 되었을 때 그 본질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상황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없을까?

참가자분들이 바라보는 ‘오픈소스’가 워크숍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고민이지만 ‘오픈 소스, 순수한 마음, 기여의 범위, 이득(경제적, 심리적)’ 이런 단어를 정의해야 할까? 굳이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해석에 맡기면 안 될까?

오픈소스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었을 때 이제는 더 구체화된 개념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아닐까? (예: 적어도 이제 대중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듯)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예술의 미래는? 이 시대에 예술가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 6

기술 번역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번역된 언어에 기반을 둔 지식이 전파되는 구조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스스로 고정된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학술 논문에서의 용어 사용, 학생(입문자)들에게 가르칠 때의 용어 사용, 그리고 적절한 번역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지점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각 문화에 따른 번역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용어가 잘 정리된, 획일화된, 중앙화된 사전이 필요한지, 아니면 각각의 맥락에 따른 용어 번역이 필요한지?

앞으로 번역 작업을 할 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p5.js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코드 번역을 할 때, 소프트웨어 / Github을 다루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일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을 번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번역 역시 해당 커뮤니티의 가치/접근성/주요한 사용자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고, 그 성격은 또 다시 해당 지식의 접근 우위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다. 더 적극적인 '역-방향/양방향'의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내적으로/외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공유/기여/수평적' (?)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정보 원산지에 속한 사람들(이를테면, 영어 네이티브 화자)에게, 그 원문의 번역과 서로 다른 뉘앙스라는 화두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 7

소화의 뜻인 '없어짐으로 생긴다(만든다)'라는 지점이 흥미롭다, 그 물리적 현상은 무엇일까?

소화 불량은 피곤하지만 즐겁다?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립적 창작이 가능한 시스템과 거대자본 베이스에서 창작하는 시스템의 비율은?

소화불량이 결국 소화될 수 있는 것일까? 결국 소화는 못 하고 게워낼 수 있고, 더 큰 탈이 날 수 있어 결국 소화불량을 어떻게 대처할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

테크놀로지는 결국 탄소기반 생명체인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이를 통해 인간은 과연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

출처 :

7/23~9/3 <코드 밀 키트> 7번의 모임을 통해 참여자가 남긴 질문